

| 문항 번호 | 주제 | 적중 내역 |
|-------|--|--|
| A형 1번 |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자기 수정 | 점검 조정(교육과정반 교재 p.233[6주차 수업]), 자기 수정(문풀5회 A-5 작성방법1) |
| A형 3번 | 문장성분, 의미역 | 의미역(1-3월 문법이론반1 8주차빔 p.12, 모고1회 B-5 본문) |
| A형 4번 | 다의어 발생 원인 (은유, 환유적 사용) | 은유, 환유(4-6월 문법이론반2 2주차빔 p.75) |
| A형 5번 | 작문 이론, 독자 분석, 공유하기 과정 | 독자 역할(마인드맵 p.217-221), 공유하기(모고8회 A-7 작성방법1) |
| A형 6번 | 면담의 소통 방식 정보 획득 경로로서 면담이 가지는 장점 | 면담 장점(마인드맵 p.236), (문풀7회 A-7 작성방 법2) |
| A형 7번 | 포트폴리오, 자기 회상법 | 적용 문제 |
| A형 8번 | 단어의 변화 (어감 차이, 품사 분류, 주어 관련 선택 제약) | 적용 문제 |
| A형 9번 | 선어말 어미 ‘-더’의 쓰임 | -더-(문풀5회 A-9 작성방법2, 1-3월 문법 이론반1 10주차빔 p.38-44) |
| B형 1번 | 필자의 주체성, 작문 수사적 상황 | 작문 수사적 상황(마인드맵 p.210) |
| B형 3번 | 중요도 평정을 활용한 요약하기, 사실적 읽기 | 중요도 평정을 활용한 요약하기(마인드맵 p.203, 문풀5회 B-3 작성방법2, 모고5회 A-5 작성방법1) |
| B형 4번 | 내용 연결 표현의 기능, 화자 공신력의 구성요소 | 내용 연결 표현(2월 7일 수업 마인드맵 p.77 판서) 공신력(마인드맵 p.90) |
| B형 5번 | 반모음 ‘j’첨가, ㄱ-약화 | 반모음 ‘j’첨가(4-6월 문법 이론반2 5주차빔 p.135-137) ㄱ-약화(4-6월 문법 이론반2 5주차빔 p.112-116) |
| B형 6번 | 장음화, 단음화 (반모음화, 동일 모음 탈락) | 장음화, 단음화(1-3월 문법 이론반1 1주차빔 p.132-136) |
| B형 7번 | 부사격 조사 ‘에’의 의미, ‘에’, ‘에서’의 차이점 | -에-(1-3월 문법 이론반1 6주차빔 p.94-95) -에-, -에서-(문풀3회 A-5 작성방법1) |



| | | | |
|-------|-------|--------|---------------------|
| A형 1번 | 독서 영역 | 강좌명 | 4-6월 이론반/7-8월 문제풀이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 적중 근거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p>A형 1번(읽기 과정 점검/조정, 자기 수정)</p> <p>김 교사: 학생이 능동적으로 읽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읽기를 할 때 학생의 사고 과정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p> <p>이 교사: 글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오독을 분석하여 독자의 읽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독을 한 경우에 독자는 자신의 읽기 과정에 대한 (㉠점검)을/를 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글을 읽는 조정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가설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독자가 자신이 잘못 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쳐 읽는 전략이 (㉡자기 수정)입니다. 독자 스스로 자신의 읽기에 오독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살피는 (㉠점검)와/과 다시 읽는 것과 같은 조정을 할 때에 상위 인지 전략이 활용됩니다. 독자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지요.</p> | <p>• 4-6월 교육과정반 교재(p.233, 6주차 수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4. 읽기 과정에서의 점검과 조정의 필요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실제 읽기 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읽기 전에 예 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고, 글의 수준이나 독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영향을 받음 → 처음에 정한 독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padding: 5px;">독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함</td> </tr> </table> </div> <p>• 7-8월 문제풀이반 5회 A형 5번</p> <p>5. (가)는 최 교사가 작성한 교단 일기이고, (나)는 안 교사, (다)는 박 교사가 사용했던 독서 평가 도구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나) 안 교사의 평가 도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이름</th> <th style="width: 20%;">오류 유형</th> <th style="width: 25%;">무반응</th> <th style="width: 25%;">삽입</th> <th style="width: 15%;">...</th> </tr> </thead> <tbody> <tr> <td>김○○</td> <td></td> <td>'반중'이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td> <td>'좋은 모습' 앞에 '아주'를 삽입함</td> <td>...</td> </tr> <tr> <td>유○○</td> <td></td> <td>'펼쳐'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td> <td>'네 이놈' 뒤에 '아'를 삽입함</td> <td>...</td> </tr> <tr> <td>이○○</td> <td></td> <td>'체현'이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td> <td>'일을 끝내다' 중간에 '우선'을 삽입함</td> <td>...</td> </tr> </tbody> </table> <p>[평가 일지] 이번 독서 평가는 학생이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학생들은 글을 읽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오독을 보임. 평가 범주를 고려했을 때, 글을 잘못 읽은 경우 해당 부분으로 되돌아가 다시 고쳐 읽는 (㉠)을/를 보이는 학생이 적음. 차후 학생들이 오독을 범하는 원인을 점검하여 적절하게 처치하고자 함.</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들어갈 말을 쓰고, ㉡와 관련하여 (나)에서 안 교사가 사용한 평가 도구의 장점 1가지를 교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다)에서 박 교사가 사용한 평가 방법의 명칭을 언급하고, ㉡와 관련하여 해당 평가 방법의 장점 1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은 '자기 수정'(혹은 자기 교정)이다. 안 교사가 사용한 오독 분석법은 학생의 읽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강점, 약점)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p> </div> | 실제 읽기 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읽기 전에 예 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고, 글의 수준이나 독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영향을 받음 → 처음에 정한 독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 | → | 독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함 | 이름 | 오류 유형 | 무반응 | 삽입 | ... | 김○○ | | '반중'이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 | '좋은 모습' 앞에 '아주'를 삽입함 | ... | 유○○ | | '펼쳐'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 | '네 이놈' 뒤에 '아'를 삽입함 | ... | 이○○ | | '체현'이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 | '일을 끝내다' 중간에 '우선'을 삽입함 | ... |
| 실제 읽기 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읽기 전에 예 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고, 글의 수준이나 독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영향을 받음 → 처음에 정한 독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 | → | 독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이름 | 오류 유형 | 무반응 | 삽입 | ... | | | | | | | | | | | | | | | | | | | | |
| 김○○ | | '반중'이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 | '좋은 모습' 앞에 '아주'를 삽입함 | ... | | | | | | | | | | | | | | | | | | | | |
| 유○○ | | '펼쳐'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 | '네 이놈' 뒤에 '아'를 삽입함 | ... | | | | | | | | | | | | | | | | | | | | |
| 이○○ | | '체현'이라는 단어에서 읽기 멈춤 | '일을 끝내다' 중간에 '우선'을 삽입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형 3번 | 현대 문법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9-11월 모의고사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A형 3번(문장 성분, 의미역) | 적중 근거 자료 | | | | |
|--|--|-----------|--|-----------|------------------------|
| <p>주어가 화자의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를 반영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하나의 문장이 서술하는 사건에서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끄는 대상이 주어로 선택된다. 이 견해를 적용하면 한국어의 다양한 논항 교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p> <p>(1) 철수가 망치로 그릇을 깬다. (2) 망치가 그릇을 깬다. (3) 그릇이 깨졌다.</p> <p>(1)에서는 ‘망치로’가 부사이인데, ‘망치’가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받으면 (2)처럼 ‘망치가’가 (㉠초점)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2)에서는 ‘그릇을’이 목적어였지만, ‘그릇’이 화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받으면 (3)처럼 ‘그릇이’가 (㉡초점)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1)~(3)에 논항으로 참여한 ‘그릇’의 경우, 문장에 따라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의미역)은/는 모두 동일하다.</p> | <p>• 1-3월 이론반 빔 자료(p.12, 8주차 수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margin-bottom: 5px;"> <p>2. 의미역</p> </div> <p>※ 앞에서 본 논항은 각각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음.</p> <p>▶ 의미역의 개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개념</td> <td>- 명사구가 서술어의 의미와 관련해 지니는 의미 기능. -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논항이 갖게 되는 의미 기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시</td> <td>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신다.</td> </tr> </table> <p>→ ‘아버지’는 ‘읽다’라는 행위를 지배 (어떤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 → 행위주역(동작주역).</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내용 이어짐</p> <p>• 9-11월 모의고사반 1회 B형 5번</p> <p>5. 다음은 ‘문장 성분’에 대한 읽기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갖추어져야만 사건의 장면이 성립된다. 이처럼 서술어가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논항’이라고 하며, 이때 논항의 역할을 ‘의미역’이라고 한다. 의미역은 <자료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text-align: center;"> <p>행위주역, 경험주역, 동반주역, 대상역, 장소역, 도착점역, 결과상태역, 출발점역, 도구역, 영향주역, 기준치역, 내용역</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 1> (하략)</p> </div> | 개념 | - 명사구가 서술어의 의미와 관련해 지니는 의미 기능 . -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논항이 갖게 되는 의미 기능. | 예시 | 아버지 가 신문을 읽으신다. |
| 개념 | - 명사구가 서술어의 의미와 관련해 지니는 의미 기능 . -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논항이 갖게 되는 의미 기능. | | | | |
| 예시 | 아버지 가 신문을 읽으신다. | | | | |



| | | | |
|-------|----------|--------|----------|
| A형 4번 | 현대 문법 영역 | 강좌명 | 4-6월 이론반 |
| | | 수업일 정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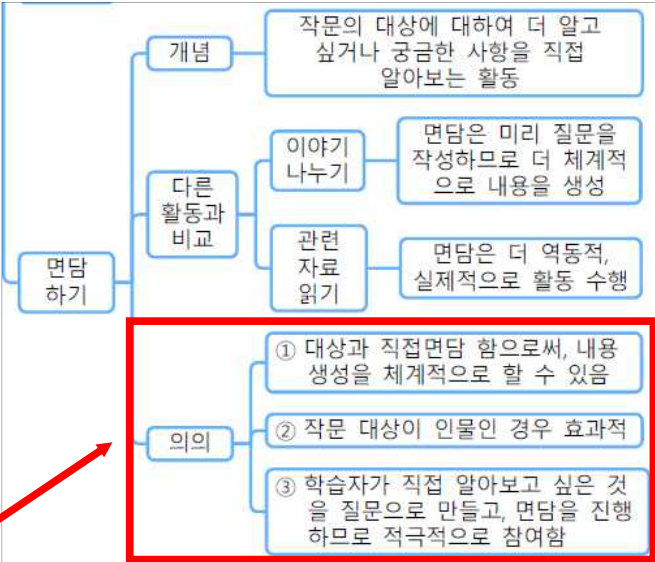

| 기출문제 A형 4번(다의어의 발생 원인) | 적중 근거 자료 | | | | | | | | | | | | |
|--|--|--|-----|--|----|---|----|--|---|----|-----------------------|----|-----------------------|
| <p><자료 1></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눈</td> <td>‘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태풍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냇이다</td> <td>‘물고기가 낚시로 잡히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피에 속아 이익을 뺏기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경품에 낚였다.</td> </tr> </table> <p><자료 2></p>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두뇌</td> <td>‘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두뇌를 잘 활용하는 인재’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우리 회사의 두뇌이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다</td> <td>‘눈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하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아이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td> </tr> </table> <p><자료 1>에서 설명하는 의미 확장에는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유사성을 통해 이해하는 인지적 기제인 (㉠은유)이/가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 2>에서 설명하는 의미 확장에는 인접성을 토대로 한 인지적 기제인 (㉡환유)이/가 개입하고 있다.</p> | 눈 |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태풍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 냇이다 | ‘물고기가 낚시로 잡히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피에 속아 이익을 뺏기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경품에 낚였다. | 두뇌 |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두뇌를 잘 활용하는 인재’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우리 회사의 두뇌이다. | 보다 | ‘눈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하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아이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 | <p>• 4-6월 이론반 빔 자료(p.75, 2주차 수업)</p> <p>(2) 은유적, 환유적 사용이 관습화된 경우.</p> <p>▶ 은유적 표현이나 환유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쓰이는 경우 다의어가 발생함.</p> <table border="1"> <tr> <td>은유</td> <td>사물의 유사성에 기반을 둔 의미 전이.</td> </tr> <tr> <td>환유</td> <td>사물의 인접성에 기반을 둔 의미 전이.</td> </tr> </table> <p>다음장 ① 은유적 사용의 관습화 예시.</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 은유 | 사물의 유사성에 기반을 둔 의미 전이. | 환유 | 사물의 인접성에 기반을 둔 의미 전이. |
| 눈 |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태풍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 | | | | | | | | | | | |
| 냇이다 | ‘물고기가 낚시로 잡히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피에 속아 이익을 뺏기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경품에 낚였다. | | | | | | | | | | | | |
| 두뇌 | ‘기억과 사고를 담당하는 신체 기관’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두뇌를 잘 활용하는 인재’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그는 우리 회사의 두뇌이다. | | | | | | | | | | | | |
| 보다 | ‘눈으로 어떤 대상을 지각하다.’라는 중심 의미에서 ‘(아이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예)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 | | | | | | | | | | | | |
| 은유 | 사물의 유사성에 기반을 둔 의미 전이. | | | | | | | | | | | | |
| 환유 | 사물의 인접성에 기반을 둔 의미 전이. | | | | | | | | | | | | |

| | | | |
|-------|-------|--------|-----------------------|
| A형 5번 | 작문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 9-11월 모의고사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 적중 근거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A형 5번(작문 이론, 독자 분석, 공유하기 과정) | 적중 근거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p>(가) 쓰기 수업을 준비하며 참고한 자료</p> <p>작문 이론에 따라 독자의 위상과 개념이 상이하게 논의되었다. 독자에 대해, 텍스트의 형식을 중시하는 작문 이론에서는 ‘㉠수동적인 수신자’ (으)로, 글쓰기를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으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능동적인 해석자’로, 글쓰기를 사회적 행위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 (으)로, 글쓰기를 다성(多聲)적인 활동으로 보는 작문 이론에서는 ‘대화 참여자’로 설명한다. (중략)</p> <p>(다) 수업 장면</p> <p>학생 A는 ‘활동 2-1’의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그 특성을 구체화하는 활동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했다. 그러다가 자신이 선택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평소 관심을 보였던 친한 친구를 한 명 떠올리고, 그 친구의 특성을 적고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중략) … 학생 A는 ‘활동 5’에서 ㉢자신의 작성한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학생 A는 자신의 글을 공유함으로써 ‘활동 2-1’을 수행하며 느꼈던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p> | <p>• 1-3월 이론반 마인드맵(p.217-221)</p>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font-size: small;">형식주의 작문 이론의 종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분석 대상</td><td>텍스트 자체</td></tr> <tr><td>텍스트 개념</td><td>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율적인 실체</td></tr> <tr><td>필자</td><td>의미의 전달자</td></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td>독자</td><td>수동적인 수신자</td></tr> <tr><td>의미 구성 능력</td><td>계속적,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해 신장</td></tr> <tr><td>단점</td><td>① 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 ② 사회적 맥락을 간과</td></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font-size: small;">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종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분석 대상</td><td>언어 공동체</td></tr> <tr><td>텍스트 개념</td><td>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및 규칙의 집합</td></tr> <tr><td>필자</td><td>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td></tr> <tr style="border: 2px solid blue;"><td>독자</td><td>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td></tr> <tr><td>의미 구성 능력</td><td>건전한 상식의 계발을 통해 신장</td></tr> </table> </div> </div> | 분석 대상 | 텍스트 자체 | 텍스트 개념 |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율적인 실체 | 필자 | 의미의 전달자 | 독자 | 수동적인 수신자 | 의미 구성 능력 | 계속적,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해 신장 | 단점 | ① 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 ② 사회적 맥락을 간과 | 분석 대상 | 언어 공동체 | 텍스트 개념 |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및 규칙의 집합 | 필자 |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 | 독자 |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 | 의미 구성 능력 | 건전한 상식의 계발을 통해 신장 |
| 분석 대상 | 텍스트 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텍스트 개념 |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율적인 실체 | | | | | | | | | | | | | | | | | | | | | | |
| 필자 | 의미의 전달자 | | | | | | | | | | | | | | | | | | | | | | |
| 독자 | 수동적인 수신자 | | | | | | | | | | | | | | | | | | | | | | |
| 의미 구성 능력 | 계속적,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해 신장 | | | | | | | | | | | | | | | | | | | | | | |
| 단점 | ① 필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 ② 사회적 맥락을 간과 | | | | | | | | | | | | | | | | | | | | | | |
| 분석 대상 | 언어 공동체 | | | | | | | | | | | | | | | | | | | | | | |
| 텍스트 개념 |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및 규칙의 집합 | | | | | | | | | | | | | | | | | | | | | | |
| 필자 |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 | |
| 독자 |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 | | | | | | | | | | | | | | | | | | | | | | |
| 의미 구성 능력 | 건전한 상식의 계발을 통해 신장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p>○ ㉠, ㉡에 들어갈 독자의 개념을 각각 순서대로 서술할 것.</p> <p>○ (가)와 관련지어, 학생 A가 ‘활동 2-1’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서술하고 ㉢이 지니는 쓰기 교육적 의의를 서술할 것.</p> |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p>○ ㉡를 바탕으로 ‘간이 수업’과 ‘출판하기’ 단계의 효용성을 각각 제시하고, ㉠를 참고하여 박 교사가 정리 단계에 추가해야 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p> <p>○ 박 교사가 넓은 범위에서의 학습 작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에 들어갈 말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p>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학생 A는 자신이 선택한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보인 친구를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친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활동 2-1’을 수행하였다. 또한 ㉢은 학습자가 산출한 쓰기 결과물을 실제 독자와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필자로서 독자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간이 수업은 쓰기 과정에서 마주하는 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효용성이 있다. 또한 출판하기는 학급 동료,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의 구성원 등 다양한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효용성이 있다. 한편 박 교사는 정리 단계에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칭찬 및 격려하기’ 활동을 추가해야 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형 6번 | 화법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7-8월 문제풀이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A형 6번(면담의 소통 방식 및 특징) | 적중 근거 자료 |
|---|--|
| <p>(나) 수업 연구회 회의록 (전략)</p> <p>김 교사: 말씀하신 추가 질문은 특히 면담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정보를 제삼자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얻기가 불가능할 때 학생들이 면담자로서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 정보 획득의 경로로서 면담이 가지는 장점과도 연관됩니다.</p> <p>(하략)</p> | <p>• 1-3월 이론반 마인드맵(p.236)</p>  |
| <p>—<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이유를 서술하고 ㉡의 이유를 ㉢과 ㉣를 관련지어 서술할 것 ○ ㉠와 ㉡를 각각 서술할 것 | <p>• 7-8월 문제풀이반 7회 A형 7번</p> <p>7. (가)는 강 교사가 제작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고, (나)는 ‘쓰기 지도’를 주제로 한 교사 간의 대화이다.<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
| <p><예시 답안></p> <p>면담은 필요한 정보를 질문으로 만들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는 면담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정보 획득 방식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학생 A는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신의 발표 내용을 발표 전 피면담자에게 공유하여 확인시켜주어야 한다.</p> | <p>—<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개념을 제시하고, ㉢에서 ㉣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 제시할 것 ○ 글쓰기 전략 ㉠의 의의를 ㉢를 참고하여 1가지 언급하고, [활동 2]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말과 ‘다발짓기’ 전략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  | <p><예시 답안></p> <p>관련 자료 읽기와 비교할 때 ㉡는 학습자가 직접 면담 대상 섭외, 질문 작성, 면담 진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므로 학습자의 활동이 더 역동적,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에 들어갈 말은 ‘글 구조’이고, 다발짓기 전략의 목적은 생성한 내용을 정리, 분류, 체계화(또는 범주화)하는 것이다.</p> |

| | | | |
|-------|----------|--------|---------------------|
| A형 9번 | 현대 문법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7-8월 문제풀이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A형 9번(선어말 어미 '-더-'의 쓰임) | 적중 근거 자료 |
|--|---|
| <p>종결형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더-'는 화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각을 통해 새로 알게 된 것을 서술할 때 사용된다는 견해가 있다.</p> <p>(1) 가. *내가 운동을 했더라. 나. 민수가 운동을 했더라. 다. 내가 다른 사람 가방을 가지고 왔더라.</p> <p>이런 견해에 따르면, (1가)과 (1나)을 비교할 때 (1가)에서 (㉠1인칭) 주어의 사용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화자가 이미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건을 서술하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의 서술에 적합한 '-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1다)은 (㉡1인칭) 주어의 사용이 어색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화자가 전에는 (㉢지각(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새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하략)</p> | <p>• 1-3월 이론반 빔 자료(p.38-44, 10주차 수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더-'의 인칭 제약</p> <p>▶ '-더-'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직접 관찰을 통해 경험, 지각한 내용을 떠올리며 말할 때 쓰는 것이므로(회상)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와 호응하지 않음.</p> <p>→ 일반적 상황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지 않기 때문임.</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 그때 보니까 {나는, 너는, 그는} 친구와 다투더라.</p> <p>→ 평서문에서 '-더-'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지 못함.</p> <p style="text-align: right;">내용 이어짐</p> </div> <p>• 7-8월 문제풀이반 5회 A형 9번</p> <p>9. 다음을 읽고 '양태'와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
|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p>○ ㉠, ㉡에 들어갈 말을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순서대로 쓸 것.</p> <p>○ (2)와 (3)에서 각각 나타나는 ㉢의 양상을 (1)에 나타나는 종결형에서의 '-더-'와 대비하여 서술할 것.</p> |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p> <p>(3) 내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라. (4) 가. {*내가 / 네가 / 상우가} 학교에 가더라. 나. {나는 / *너는 / *상우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좋더라.</p> <p>예문 (3)의 경우 '-더-'가 미래의 일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가 표현하는 과거는 '사태'의 시간적 위치가 아닌 (㉣인식)의 시간적 위치임을 알 수 있다.</p> <p>또한 '-더-'는 (4.가)과 같이 일반적으로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를 취하지 않는다. 단 ㉠(4.나)과 같이 특정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평서문이라도 1인칭 주어만을 취할 수 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은 '1인칭'이고 ㉡은 '지각(인식)하지 못한'이다.</p>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

| | | | |
|-------|-------|--------|----------|
| B형 1번 | 작문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 |
| | | 수업일 정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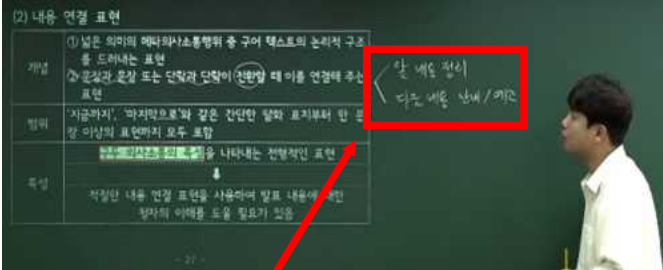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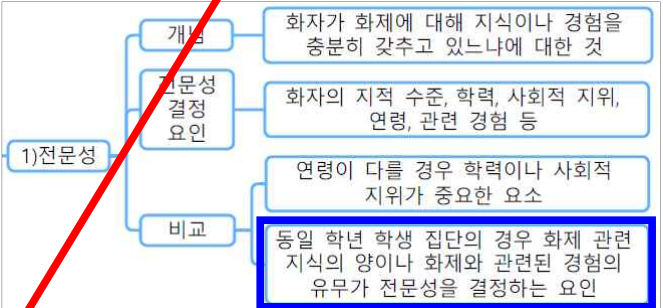
| 기출문제 | 적중 근거 자료 |
|---|---|
| <p>B형 1번(필자의 주제성, 작문의 수사적 상황)</p> <p>좋은 쓰기 과제는 어떤 특징을 지닐까? 쓰기 과제에 단서나 정보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여 상세하게 제시할수록 좋은 걸까? 연구자들에 따르면, 쓰기 과제가 모든 구성 요소를 다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학습자는 스스로 과제의 일정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필자로서 (㉠주도성)을/를 가지고 글쓰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쓰기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쓰기의 전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필자로서의 (㉡주도성)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p> <p>이를 고려했을 때, 쓰기 과제 설계 시 수사적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주제)을/를 학습자가 직접 선택하고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학습자는 (㉣주제)에 대한 친숙도가 낮고 관련 배경지식이 적어 쓸 거리가 떨어지면, 쓰기를 멈추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쓰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흥미를 반영하여 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습자는 쓰기에 더욱 몰입하며 쓰기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p> | <p>• 1-3월 이론반 마인드맵(p.210)</p> <pre> graph LR A["(3) 글의 주제"] --- B["① 주제를 선택"] A --- C["② 주어진 주제"] A --- D["③ 여러 주제 중 선택"] B --- B1["주제에 대한 필자의 입장"] B --- B2["예상 독자에 대한 필자의 기대"] B --- B3["필자에 대한 예상 독자의 요구"] C --- C1["예상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D --- D1["필자의 흥미와 관심, 배경지식과 가장 잘 부합하는 주제를 선택"] </pre> <p style="text-align: center;"> </p> |

| | | | |
|-------|-------|--------|---------------------|
| B형 3번 | 독서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7-8월 문제풀이반 |
| | | 수업일 정보 | /9-11월 모의고사반 - |

| 기출문제 | 적중 근거 자료 |
|--|--|
| B형 3번(중요도 평정, 요약하기, 사실적 읽기) | 적중 근거 자료 |
| <p>(가) 교사의 수업 활동 계획</p> <p>능숙한 독자는 글의 구조를 활용하여 중심이 되는 정보를 선택하며 회상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글의 사실적 이해를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p> <p>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글의 중요 내용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 각각의 문장의 글에서 중요한 정도를 점수로 부여하는 활동을 해야겠다. 글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의 판단에는 글 요인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 글 요인 이외의 정보를 활동지 앞에 제시해야겠다.</p> | <p>• 1-3월 이론반 마인드맵(p.20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div> <p>• 7-8월 문제풀이반 5회 B형 3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방법 1 생략 ◦ ㉠ 이 교사의 대사와 <자료 1, 2>를 바탕으로 이 교사가 '활동 2-2'에서 지도한 사항을 1가지 제시하고, <자료 1, 2>를 언급하여 그 실현 양상을 서술할 것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이 교사는 '동일한 글을 읽더라도 목적에 따라 요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1>의 학생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온실 가스의 개념, 영향 및 증가 추이'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였고, <자료 2>의 학생은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문제점,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였다.</p> </div> |
|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명칭을 쓰고, (가)를 참고하여 ㉠을 제시한 이유를 서술할 것. ◦ '활동 1'㉠에 활용된 요약하기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활동 2'의 ㉠을 보완하되 글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서술할 것. |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활동 1]에서 현주가 잘못 요약한 문단을 골라 올바르게 고쳐 서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지도해야 할 요약 규칙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작성 방법 2 생략 |
|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은 중요도 평정이다. ㉠을 제시한 이유는 학습자로서 하여금 읽기 목적이 중요 내용(부분) 선별에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p> <p>㉠은 2문단의 '자신과 똑같은 자손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증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재구성하기 규칙을 활용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수업 활동지의 글은 '핵심-상술'구조로, 2문단의 '핵심' 내용이 3문단, 4문단에서 '부연 상술'되고 있다. 따라서 ㉠은 "3문단 문장 ㉡는 '우선'이라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바이러스는 먹이를 먹지 않고 자라지도 않는다.'라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소개하기 때문"으로 보완해야 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활동 1]에서 현주가 잘못 요약한 문단은 ㉢문단으로, '농장 시장은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는 ㉢문단을 요약할 때 재구성 규칙을 사용하되,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표현하는 일반화 규칙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p> |



| | | | |
|-------|-------|--------|----------|
| B형 4번 | 화법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B형 4번(내용 연결 표현, 화자의 공신력) | 적중 근거 자료 |
|--|--|
| <p>(나) 수업 대화</p> <p>교사: 영호의 연설을 잘 들었나요? 이를 바탕으로 보면, 말하기는 쓰기와 달라서 내용 조직이 시각적으로 잘 구분되어 전달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영호는 연설에서 ㉠ 담화 구조를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내용 연결 표현’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이 구어 의사소통의 특징인 만큼 여러분도 청자의 입장에서 이 의사소통 장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학생 화자가 연설자로서 어떻게 공신력을 보완하는가의 문제예요. 영호가 성실하게 자료 조사를 해서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이 외에, ㉡ 추가로 사용한 방법이 인상적이에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또래 집단을 설득해야 하거든요.</p> <p>학생: 영호 말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p>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가)에서 찾아 첫 어절을 쓰고, 이 표현이 청자의 정보 처리 측면에서 후행 내용을 어떻게 안내하는지를 서술할 것. ○ ㉡과 관련하여, (가)에서 연설자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서술하고, 이를 통해 연설자로서 공신력을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공신력의 구성 요인 중 하나와 연결지어 서술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의 첫 어절은 ‘저는’이다. 이러한 내용 연결 표현은 논의 범위를 ‘청소년이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 일’과 같이 청자가 인지적으로 처리해야 할 영역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후행 내용을 안내한다.</p> <p>(가)의 연설자는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사례를 언급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또래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드러내어 공신력을 보완하고 있다.</p> | <p>• 1-3월 이론반 2월 7일 수업</p>  <p>• 1-3월 이론반 마인드맵(p.90)</p>  |




| | | | |
|-------|----------|--------|----------|
| B형 5번 | 현대 문법 영역 | 강좌명 | 4-6월 이론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B형 5번('j'첨가, ㄱ-약화) | 적중 근거 자료 | | | | | | | | | | | | | | | |
|---|---|--|--------------------|--------------------|--|----------------------|----------------------|------|----------------------------|--------------------|------|------------------------------|----------------------|------|-------------------------------------|--|
| <p>중세 국어의 첨가 현상 중 'j' 첨가는 (1)과 같이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p> <p>(1) ㄱ. 뉘-+-어 → 뉘여, ㄷ외-+-아 → ㄷ외야, 내-+-오려 → 내요려 ㄴ. 퍼디-+-어 → 퍼디여, 지-+-어 → 지여</p> <p>중세 국어의 'ㄱ, ㄷ, ㄴ, ㄹ'가 하향 이중 모음이었다고 볼 때, (1ㄱ)과 (1ㄴ)은 'j' 첨가가 일어나는 음운론적 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ㄴ)의 환경에서는 'j' 첨가가 아닌 반모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p> <p>(2) 바오리어늘</p> <p>한편, (2)는 (1ㄴ)과 동일하게 'j' 첨가 적용 환경을 갖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 (2)는 'j'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2)는 '바올+이-+거늘'로 분석되며,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 대치 현상이 적용됐기 때문이다.</p> | <p>• 4-6월 이론반 빔 자료(p.135-137, 5주차 수업)</p> <p>① 반모음 'j' 뒤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p> <p>반모음 j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 j가 첨가됨.</p> <table border="1"> <tr> <td><예시></td> <td>내 + 아 → 내야</td> <td>내 + 음 → 내음</td> </tr> <tr> <td></td> <td>ㄷ외 + 아 → 다외야</td> <td>ㄷ외 + 음 → ㄷ외음</td> </tr> </table> <p>▶ 이와 같은 반모음 첨가는 매우 규칙적으로 일어남.</p> <p>② 단모음 'l' 뒤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p> <p>단모음 l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나 체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 j가 첨가됨.</p> <table border="1"> <tr> <td><예시></td> <td>용언 호리 + 어 → 호리여</td> <td>지 + 어 → 지여</td> </tr> <tr> <td><예시></td> <td>체언 서리 + 에서 → 서리에서</td> <td>ㄷ리 + 에 → ㄷ리에</td> </tr> </table> <p>▶ 이와 같은 반모음 첨가는 체언에서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지만 용언에서는 수의적임.</p> <p>• 4-6월 이론반 빔 자료(p.112-116, 5주차 수업)</p> <p>6. ㄱ-약화</p> <p>(1) ㄱ-약화의 개념.</p> <p>ㄱ-약화 개념: 'ㄹ'이나 'l' (j)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ㄱ'이 'ㅇ'(유성 후두 마찰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p> <p>ㄱ-약화 환경: -ㄱ → ㅇ/h/ → 'ㄹ', 반모음 j'로 끝나는 어간 뒤, '-이다, -아니다' 어간 뒤, 선어말 어미 '-리-, -니-' 뒤.</p> <p><예시 ③> 서술격 조사, 미래 시제 -리- 밑에서의 ㄱ-약화.</p> <table border="1"> <tr> <td><예시></td> <td>눈 + 이 + 고 → 눈니오 (예 눈이고)</td> <td>흐 + 리 + 거늘 → 흐리어늘 (예 하겠거늘)</td> </tr> </table> <p>▶ 이 또한 눈니오, 흐리어늘에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 눈니오, 흐리어늘이 되지 않은 것은 ㅇ이 음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p> | <예시> | 내 + 아 → 내 야 | 내 + 음 → 내 음 | | ㄷ외 + 아 → 다 외야 | ㄷ외 + 음 → ㄷ 외음 | <예시> | 용언 호리 + 어 → 호리 여 | 지 + 어 → 지 여 | <예시> | 체언 서리 + 에서 → 서리 에서 | ㄷ리 + 에 → ㄷ리 에 | <예시> | 눈 + 이 + 고 → 눈 니 오 (예 눈이고) | 흐 + 리 + 거늘 → 흐 리 어늘 (예 하겠거늘) |
| <예시> | 내 + 아 → 내 야 | 내 + 음 → 내 음 | | | | | | | | | | | | | | |
| | ㄷ외 + 아 → 다 외야 | ㄷ외 + 음 → ㄷ 외음 | | | | | | | | | | | | | | |
| <예시> | 용언 호리 + 어 → 호리 여 | 지 + 어 → 지 여 | | | | | | | | | | | | | | |
| <예시> | 체언 서리 + 에서 → 서리 에서 | ㄷ리 + 에 → ㄷ리 에 | | | | | | | | | | | | | | |
| <예시> | 눈 + 이 + 고 → 눈 니 오 (예 눈이고) | 흐 + 리 + 거늘 → 흐 리 어늘 (예 하겠거늘)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p>○ (1ㄱ)과 (1ㄴ)에서 'j' 첨가가 일어나는 음운론적 환경을 각각 서술할 것.</p> <p>○ (2)의 어미 초성에 나타난 대치 현상의 명칭을 쓰고, ㉠의 이유에 대해 음운론적 환경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p>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1ㄱ)은 'j'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여 'j' 첨가가 일어났다. 반면 (1ㄴ)은 단모음 'l'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여 'j' 첨가가 일어났다.</p> <p>(2) 어미 초성에 나타난 대치 현상은 'ㄱ-약화'(ㄱ의 유성 후음화)이다. ㉠의 이유는 'j' 첨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후행하는 문법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어늘'의 'ㅇ'은 음가가 있는 후두 유성 마찰음(h)이므로 'j' 첨가가 일어날 음운론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p> | | | | | | | | | | | | | | | | |



| | | | |
|-------|----------|--------|----------|
| B형 6번 | 현대 문법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B형 6번(장음화, 단음화) | 적중 근거 자료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p> <p>(1) ㄱ. 손목에 붕대를 감고[감:꼬] 있었다. ㄴ. 지수가 시계태엽을 감아[가마] 두었다. ㄷ. 발이 줄에 감겨[감겨] 넘어질 뻔했다.</p> <p>(1)은 <표준 발음법>에 제시되어 있는 ‘감다’와 ‘감기다’의 발음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본래 ‘감다’는 (1ㄱ)처럼 장음으로 실현되지만 ㉠ (1ㄴ)과 같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어두 위치에서 단음이 되기도 한다. 또한 ㉡ (1ㄱ)의 ‘감다’와 달리 (1ㄷ)의 ‘감기다’는 어두가 단음인데, 두 단어는 문법적 차이가 있다.</p> <p>한편, 어두 장음은 단음절 어간의 보상적 장음화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p> <p>(2) ㄱ. 이 포도는 너무 셔[셔:]. ㄴ. 오늘은 네가 좀 개[개:].</p> <p>(2)는 단음절 어간 ‘시-’와 ‘가-’가 어미 ‘-아/어’와 결합한 예이다. (2ㄱ)은 단음절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절 수가 줄어들어 따라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단음절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한 음절로 줄어든다고 하여 무조건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ㄴ)은 단음절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절 수가 줄었지만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을 참고하여 ㉠의 ‘음운론적 환경’과 ㉡의 ‘문법적 차이’에 대해 서술할 것. ○ (2)의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는 양상과 관련하여, (2ㄱ)과 (2ㄴ)의 음운 현상의 명칭과 음운론적 환경을 연결하여 각각 서술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1ㄴ)은 장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환경에서 단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반면 (1ㄷ)은 장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감-’이 피동 접미사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단음으로 실현된 것이다.</p> <p>(2ㄱ)은 용언 어간 ‘시-’가 어미 ‘-어’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반모음화가 일어나 음절 수가 줄어들어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었다. 반면 (2ㄴ)은 용언 어간 ‘가-’가 어미 ‘-아’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나 보상적 장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p> | <p>• 1-3월 이론반 빔 자료(p.132-136, 1주차 수업)</p> <p>(2) 단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음화는 음절 수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음. ▶ 단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총 2가지). ① 1음절로서 장음을 가진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피사동 접미사가 오는 경우 <table border="1"> <tr> <td rowspan="4">(10) 나.</td> <td>감 + 으니 → [가므니].</td> <td rowspan="2">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td> </tr> <tr> <td>발 + 아 → [발바].</td> </tr> <tr> <td>감 + 기다 → [감기다].</td> <td rowspan="2">피사동 접미사 결합.</td> </tr> <tr> <td>꼬 + 이다 → [꼬이다].</td> </tr> </table> <p>(1) 장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음화는 반모음화가 일어나거나 표면상 모음이 하나 사라지는 등. 음절 수가 줄어들 때 많이 나타남. <table border="1"> <tr> <td rowspan="4">(10) 가.</td> <td>보 + 아 → [봐:], 기 + 어 → [겨:].</td> <td rowspan="2">반모음화</td> </tr> <tr> <td>두 + 어 → [뒤:].</td> </tr> <tr> <td>새 + 어서 → [새:셔], 채 + 어도 → [채:도].</td> <td rowspan="2">모음 사라짐</td> </tr> <tr> <td>마음 > 맘[맘:], 처음 > 침[침:], 제일 > 젤[젤:].</td> </tr> </table> <p>▶ 따라서 음절 수가 감소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장음화가 일어났다고 해석하기도 함.</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장 (2)단음화</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 (10) 나. | 감 + 으 니 → [가므니]. | 모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 | 발 + 아 → [발바]. | 감 + 기 다 → [감기다]. | 피사동 접미사 결합. | 꼬 + 이 다 → [꼬이다]. | (10) 가. | 보 + 아 → [봐:], 기 + 어 → [겨:]. | 반모음화 | 두 + 어 → [뒤:]. | 새 + 어서 → [새:셔], 채 + 어도 → [채:도]. | 모음 사라짐 | 마음 > 맘[맘:], 처음 > 침[침:], 제일 > 젤[젤:]. |
| (10) 나. | 감 + 으 니 → [가므니]. | | 모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 | | | | | | | | | | | | |
| | 발 + 아 → [발바]. | | | | | | | | | | | | | | |
| | 감 + 기 다 → [감기다]. | | 피사동 접미사 결합. | | | | | | | | | | | | |
| | 꼬 + 이 다 → [꼬이다]. | | | | | | | | | | | | | | |
| (10) 가. | 보 + 아 → [봐:], 기 + 어 → [겨:]. | 반모음화 | | | | | | | | | | | | | |
| | 두 + 어 → [뒤:]. | | | | | | | | | | | | | | |
| | 새 + 어서 → [새:셔], 채 + 어도 → [채:도]. | 모음 사라짐 | | | | | | | | | | | | | |
| | 마음 > 맘[맘:], 처음 > 침[침:], 제일 > 젤[젤:]. | | | | | | | | | | | | | | |

| | | | |
|-------|----------|--------|---------------------|
| B형 7번 | 현대 국어 영역 | 강좌명 | 1-3월 이론반/7-8월 문제풀이반 |
| | | 수업일 정보 | - |

| 기출문제 | 적중 근거 자료 | | | | | | | | | | | | | | |
|--|--|---------|-----------------------|--------|------------|----|--|----|---|----|--|----|---|----|---|
| <p>B형 7번(부사격 조사 ‘에’, ‘에’/‘에서’ 차이점)</p> <p>교사: 부사격 조사는 ‘에, 에서, (으)로, 보다’ 등이 있는데, 다른 격 조사에 비해 종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하나의 부사격 조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먼저 (1)의 부사격 조사 ‘에’를 살펴봅시다.</p> <p>(1) 가. 민주가 집에 있다. 나. 지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다. 김밥이 한 줄에 천 원이다.</p> <p>학생: (1가)의 ‘에’는 처소(處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교사: 맞습니다. 그런데 (1가), (1나), (1다)의 ‘에’는 모두 의미가 다릅니다. 학생: 선생님, ‘에’와 ‘에서’는 어떤가요? 교사: (2)의 ‘에’와 ‘에서’는 처소를 나타내는 ‘마당’과 결합하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p> <p>(2) 가. 영호가 마당에 꽃을 심었다. 나. 영호가 마당에서 꽃을 심었다.</p> <p>교사: (2가)의 ‘에’는 (㉠) 곳을 나타내지만, (2나)의 ‘에서’는 (㉡) 곳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p>○ (1나), (1다)의 ‘에’가 나타내는 바를 각각 서술할 것. ○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2어절로 쓸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1나)의 ‘에’는 이유(원인)을 나타내고, (1다)의 ‘에’는 단위를 나타낸다. ㉠은 ‘대상이 위치한(대상이 소재한)’이고, ㉡은 ‘행위자(주체)가 위치한(행위자가 소재한)’이다.</p> | <p>• 1-3월 이론반 빔 자료(p.94-95, 6주차 수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처소와 관련 있는 부사격조사</p> <p>▶ 처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 → ‘에/에서/에게’ 등</p> <p>㉠ 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기본적인 의미</td> <td style="width: 25%;">처소(낙착점) → 지점(위치), 도착점</td> <td style="width: 25%;">확장된 의미</td> <td style="width: 25%;">시간, 단위, 원인</td> </tr> </table> </div> <p>▶ ‘에’의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가.</td> <td>그는 오늘 종일 집에 있었다. ⇒ ‘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처소(낙착점)의 의미.</td> </tr> <tr> <td>나.</td> <td>너무 더워 서둘러 물에 들어갔다. ⇒ ‘에’ 뒤에 이동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가 올 경우 ‘에’가 처소(지향점)을 나타내기도 함.</td> </tr> <tr> <td>다.</td> <td>3시에 대학로에서 만나자. ⇒ ‘에’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냄.</td> </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 <td>라.</td> <td>이 사과 한 개에 얼마지요? ⇒ ‘에’가 단위의 의미를 나타냄.</td> </tr> <tr style="border: 2px solid blue;"> <td>마.</td> <td>어젯밤 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 ⇒ ‘에’가 원인의 의미를 나타냄.</td> </tr> </table> <p>• 7-8월 문제풀이반 3회 B형 5번</p> <p style="text-align: center;"><작성 방법></p> <p>○ ㉠을 바탕으로 예문 (2)를 활용하여 ‘-에’와 ‘-에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를 바탕으로 예문 (4)의 중의적 의미 2가지를 서술하되, 각각의 의미에서 ‘-와’의 품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 답안></p> <p>(2.가)의 ‘바위 위’는 심는 행위의 대상인 ‘꽃’의 소재이므로 ‘-에’는 대상의 소재를 나타낸다. 반면 (2.나)의 ‘바위 위’는 심는 행위의 주체인 ‘그’의 소재이므로 ‘-에서’는 행위 주체의 소재를 나타낸다는 차이점이 있다.</p> | 기본적인 의미 | 처소(낙착점) → 지점(위치), 도착점 | 확장된 의미 | 시간, 단위, 원인 | 가. | 그는 오늘 종일 집에 있었다. ⇒ ‘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처소(낙착점) 의 의미. | 나. | 너무 더워 서둘러 물에 들어갔다. ⇒ ‘에’ 뒤에 이동의 의미 를 지니는 동사가 올 경우 ‘에’가 처소(지향점) 을 나타내기도 함. | 다. | 3시에 대학로에서 만나자. ⇒ ‘에’가 시간 의 의미를 나타냄. | 라. | 이 사과 한 개에 얼마지요? ⇒ ‘에’가 단위 의 의미를 나타냄. | 마. | 어젯밤 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 ⇒ ‘에’가 원인 의 의미를 나타냄. |
| 기본적인 의미 | 처소(낙착점) → 지점(위치), 도착점 | 확장된 의미 | 시간, 단위, 원인 | | | | | | | | | | | | |
| 가. | 그는 오늘 종일 집에 있었다. ⇒ ‘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처소(낙착점) 의 의미. | | | | | | | | | | | | | | |
| 나. | 너무 더워 서둘러 물에 들어갔다. ⇒ ‘에’ 뒤에 이동의 의미 를 지니는 동사가 올 경우 ‘에’가 처소(지향점) 을 나타내기도 함. | | | | | | | | | | | | | | |
| 다. | 3시에 대학로에서 만나자. ⇒ ‘에’가 시간 의 의미를 나타냄. | | | | | | | | | | | | | | |
| 라. | 이 사과 한 개에 얼마지요? ⇒ ‘에’가 단위 의 의미를 나타냄. | | | | | | | | | | | | | | |
| 마. | 어젯밤 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 ⇒ ‘에’가 원인 의 의미를 나타냄. | | | | | | | | | | | | | | |



2026 - 02 (A형/ 기입형) 문제 원본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은 1어절로, ㉡은 2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 (상략) ...

- (中葉) 동경(東京) 발근 다투 새도록 노니다가
- (附葉) 드러 내 자리를 보니 가로리 네히로새라
- (小葉) 아으 들흔 내해어니와 들흔 뉘해어니오
- (大葉) 이런 저귀 처용아비웃 보시면
열병대신(熱病大神)이사 회(膾)스가지로다
- 천금(千金)을 주리여 처용아바
- 칠보(七寶)를 주리여 처용아바
- (附葉) 천금 칠보도 말오
열병신을 날 자바 주쇼셔
- (中葉) 산이여 뫼히여 천리(千里) 외(外)에
- (附葉) 처용아비를 어여겨겨져
- (小葉) 아으 열병대신의 발원이샷다

- 고려 「처용가」 -

(나)

「처용가」는 고전시가 작품을 통시적으로 비교·고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신라 「처용가」와 고려 「처용가」에서 주인공 처용의 모습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신라 「처용가」에서는 역신이 아내를 침범한 상황에 대해 처용이 체념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고려 「처용가」에서는 역신에 대한 분노를 바탕으로 (㉠)이라는 표현처럼 처용이 역신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위력을 드러내고 있다. 역신 또한 그러한 처용의 위력에 완전히 굴복하여 (㉡)이라고 말함으로써, 처용이 지닌 권능을 부각하고 있다.

적중 !!!

| | |
|-------|--|
| 문항 번호 | 2026학년도 A형 2번 기입형 |
| 배 점 | 2점 |
| 출제 영역 | 항가「처용가」와 고려가요「처용가」의 비교 |
| 적중 내역 | 문풀 1회 B형 10번 관련 하하 똑같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문제풀이반 1회 A형 10번 문제

10. 다음을 읽고, 작품의 특징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나) (前腔) 新羅聖代 昭聖代
天下太平 羅侯德
處容아바
以是人生애 相不語하시란데
以是人生애 相不語하시란데

(附葉) 三災八難이 一時消滅하샷다

(中葉) 어와 아비 즈시여 處容아비 즈시여

(附葉) 滿頭插花 계오샤 기울어신 머리에

(小葉) 아으 壽命長願하샤 넘거신 니마해

(後腔) 山象이슴 강어신 눈섭에

愛人相見하샤 오살어신 누네

(附葉) 風入盈庭하샤 우글어신 귀에

(中葉) 紅桃花가티 붉거신 모야해

(附葉) 五香 마타샤 웅기어 신고해

(小葉) 아으 千金 머그샤 어위어신 이베

(大葉) 白玉琉璃가티 해어신 닛바래

人讚福盛하샤 미나거신 탁애

七寶 계우샤 숙거신 엇게에

吉慶 계우샤 늘의어신 사맛길해

(附葉) 설미 모도와 有德하신 가사매

(中葉) 福智俱足하샤 브르거신 배에

紅鏡 계우샤 굽거신 허리에

(附葉) 同樂太平하샤 길어신 허뒤에

(小葉) 아으 界面 도르샤 넘거신 바래

(前腔) 누고 지서 세니오 누고 지서 세니오

바늘도 실도 어찌 바늘도 실도 어찌

(附葉) 處容아비를 누고 지서 세니오

(中葉) 마아만 마아마하니여

(附葉) 十二諸國이 모다 지서 세운

(小葉) 아으 處容아비를 마아마하니여

(後腔) 머자 외야자 綠李야

빨리나 내 신고할 매야라

[B]

(附葉) 아니웃 매시면 나리어다 머즌말

(中葉) 東京 발근 다투 새도록 노니다가

(附葉) 드러 내 자리를 보니 가로리 네히로새라

[C]

(小葉) 아으 들흔 내해어니와 들흔 뉘해어니오

(大葉) 이런 저귀 處容아비웃 보시면

熱病神(大神)이사 膾스가지로다

천금을 주리여 處容아바

七寶를 주리여 處容아바

(附葉) 千金 七寶도 말오

熱病神를 날자바 주쇼셔

(中葉) 山이여 뫼히여 千里外에

(附葉) 處容아비를 어여겨겨져

(小葉) 아으 熱病大神의 發願이샷다

- 작자미상, 「처용가(處容歌)」



2026 - 11 (A형/ 서술형) 문제 원본

11.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현은 평양이 십여 년 만이다. 소설에서 평양 장면을 쓰게 될 때마다, 이번에는 좀 새로 가 보고 써야, 스케치를 해 와야, 하고 버리기만 했지, 한 번도 그래서 와 보지는 못하였다. 소설을 위해서뿐 아니라 친구들도 가끔 놀러 오라는 편지가 있었다. 학창 때 사귄 벗들로, 이곳 부회 의원이요 실업가인 김(金)도 있고, 어느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朴)도 있건만, 그들의 편지에 한 번도 용기를 내어 본 적은 없었다. 이번에 받은 박의 편지는 놀러 오라는 말이 있던 편지보다 오히려 현의 마음을 끌었다—내 시간이 반이 없어진 것은 자네도 짐작할 걸세. 편안하긴 허이. 그러나 전업오른 나가 주고 시간으로나 다녀 주기를 바라는 눈칠세. 나머지 시간이라야 그리 오래 지탱돼 나갈 학과 같지는 않네. 그것마저 없어지는 날 나도 그때 아주 손을 씻어 버리려 아직은 지식지식* 붙어 있네—하는 사연을 읽고는 갑자기 박을 가 만나 주고 싶었다. 만나야만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이라도 한번 잡아 주고 싶어 전보만 한 장 치고 훌쩍 떠나 내려온 것이다.

[A]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짙은 지 오래어 터부룩한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식지식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지식지식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식지식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 (중략) …

“이 사람아? 김군 말씀 고지식하게 탄할 게 뭐가?”

“후…….”

“그까짓 무슨 소용이야…….”

“내가 취했다 보이…… 내가…… 김군이 미워 그리나?…… 자넨 들어가 보게…….”

현은 한참 난간에 의지해 섰다가 슬리퍼를 신은 채 강가로 내려왔다. 강에는 배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바람은 없으나 등골이 오싹해진다. 강가에 흩어진 나뭇잎들은 서릿발이 끼쳐 은종이처럼 번뜩인다. 번뜩이는 것을 찾아 하나씩 밟아 본다.

“이상견빙지(履霜堅冰至)…….”

『주역(周易)』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현은 술이 확 켜다. 저고리실을 여미나 찬 기운은 품속에 사무친다. 담배를 피우려 하나 성냥이 없다.

“이상견빙지…… 이상견빙지…….”

밤 강물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하다.

- 이태준, 『쾌강령(淸江令)』 -

* 지식지식: 남이 싫어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가 좋아 하는 것만 자꾸 짓궂게 요구하는 모양.

적중 !!!

| | |
|-------|---------------------------|
| 문항 번호 | 2026학년도 A형 11번 서술형 |
| 배 점 | 4점 |
| 출제 영역 | 이태준 소설 <쾌강령> |
| 적중 내역 | 문풀 8회 A형 12번 관련 |
| | 하하 역시 같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문제풀이반 8회 A형 12번 문제

12.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가)

“에-헥-에- 헤이야-하 어-라 우겨-라 방아로구나…….”하고 받는 사람은 김뿐이다. 현은 더욱 가슴속에서만 끓는다. 이런 댄 소리라도 한마디 불러내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랴 싶어진다. 기생들도 다른 기생들은 잠잠히 앉아 영월의 입만 쳐다본다.

소리가 끝나자 박은, “수고했네.”

하고 영월에게 술 한잔을 권하더니 가사를 하나 부르라 청한다. 영월은 사양치 않고 밀어 놓았던 장구를 다시 당기어 안더니,

“일조-오- 니양군…….”

불러 낸다. 박은 입을 씻고 씻고 하더니 곡조는 서투르나 그래도 꽤 어울리게 이런 시 한 구를 읊어서 소리를 받는다.

㉠ “각하-안- 산-진 수궁처…… 임-정- 가교옥- 역난위를…….”

박은 눈물이 글썽해 후- 한숨으로 끝을 맺는다. <중략>

“아닌게 아니라 자네들 이제부터 실속 채려야 하네.”

하고 김은 힐끗 현의 눈치를 본다.

“더러운 자식!”

“흥, 너이가 아무리 꼬장꼬장한 체해야…….”

“뭘 이자식…….”

하더니 현은 술을 깨려고 마시던 사이다킵을 김에게 사이다찌 던져 버린다. 깨지고 뭉고 하는 것은 유리킵만이 아니다. 기생들이 그리고 쏠린다. 보이들도 들어온다.

“이 자식? 되나 안 되나 우린 우린… 이래 배두 우리……”

하고 현의 두리두리해진 눈엔 눈물이 핑- 어리고 만다.

“이런 데서 뭘… 이 사람 취했네그러, 나가 바람 좀 쐬세.”

하고 박이 부산한 자리에서 현을 이끌어 낸다. 현은 담배를 하나 집으며 복도로 나왔다.

“이 사람아? 김군 말씀 고지식하게 탄할 게 뭐가?”

“후…….”

“그까짓 무슨 소용이야…….”

“내가 취했다 보이… 내가… 김군이 미워 그리나? … 자넨 들어가 보게…….”

현은 한참 난간에 의지해 섰다가 슬리퍼를 신은 채 강가로 내려왔다. 강에는 배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바람은 없으나 등골이 오싹해진다. 강가에 흩어진 나뭇잎들은 서릿발이 끼쳐 은종이처럼 번뜩인다. 번뜩이는 것을 찾아 하나씩 밟아 본다.

㉡ “이상견빙지(履霜堅冰至)…….”

<주역(周易)>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현은 술이 확 켜다. 저고리실을 여미나 찬 기운은 품 속에 사무친다. 담배를 피우려 하나 성냥이 없다.

“이상견빙지… 이상견빙지…….”

밤 강물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하다.

- 이태준, 『쾌강령』 -

2026 - 02 (B형/ 기입형) 문제 원본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 |
|------------------------|---------|
|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 新釀濁酒如渾白 |
|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 大碗麥飯高一尺 |
|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 飯罷取枷登場立 |
|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 雙肩漆澤翻日赤 |
|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 呼邪作聲舉趾齊 |
|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사방에 가득하네. | 須臾麥穗都狼藉 |
|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 雜歌互答聲轉高 |
|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는 보리 티끌. | 但見屋角紛飛麥 |
| 그 기색 살피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 觀其氣色樂莫樂 |
|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 了不以心爲形役 |
|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樂園樂郊不遠有 |
| 무엇하러 괴로이 벼슬길에 헤매리오. | 何苦去作風塵客 |

-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

<보기>

이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밤과 막걸리로 속을 든든하게 채운 농민들이 보리타작에 나선 모습과 노래를 부르며 발맞추어 흥겹게 보리타작을 하는 역동적인 정경을 형상화하였다. 이를 통해 고된 노동의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작품의 뒷부분에서는 이 같은 농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 삶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과거 벼슬길을 좇던 자신의 삶에 대해 (㉡)하고 있다.

적중 !!!

| | |
|-------|-------------------|
| 문항 번호 | 2026학년도 B형 2번 기입형 |
| 배 점 | 4점 |
| 출제 영역 | 정약용 <보리타작>에 대한 이해 |
| 적중 내역 | 모의고사 5회 B 8번 |



모의고사반 5회 B형 8번 문제

8. 다음 (가)~(다)는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제재이고, <보기>는 교사의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 | |
|------------------------|---------|
|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 新釀濁酒如渾白 |
|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 大碗麥飯高一尺 |
|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 飯罷取枷登場立 |
|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 雙肩漆澤翻日赤 |
| 응혜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 呼邪作聲舉趾齊 |
|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 須臾麥穗都狼藉 |
|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 雜歌互答聲轉高 |
|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 但見屋角紛飛麥 |
| 그 기색 살피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 觀其氣色樂莫樂 |
|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 了不以心爲形役 |
|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樂園樂郊不遠有 |
|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 何苦去作風塵客 |

- 정약용, 「보리타작 (打麥行)」 -

<보기>

(가)는 다산 정약용 문학의 사실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시의 한 체인 ‘행(行)’ 형식을 사용하여 흥겹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에요. (가)는 ‘기-승-전-결’의 구조와 ‘선경후정’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 또한, 내용상 ‘화자의 자아성찰 과정’이 나타나는데 ‘1~8행’, ‘9~10행’, ‘11~12행’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첫 단계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략>

※ 문제 해설지 일부 : 보리타작 (打麥行) - 정약용

1. 이해와 감상

-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는, 보리타작이라는 노동에 몰두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노동하는 삶이야말로 기쁜 삶이라는 주제를 잘 나타내고 있는 민요풍의 한시이다. 작자는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합일(合一)되어 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 마음(정신)이 몸(육체)의 노예가 되어 벼슬길을 좇으며 일상의 삶에 시달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평민들의 현실 세계에서 찾고자 한, 당시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실학사상, 즉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적 지향과 이념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작품의 시상 전개 구조를 보면, 전반부(1~8행)에서는 농민들이 보리타작을 하는 현장의 분위기와 정경을 사실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후반부(9~12행)에서는 농민들의 건강하면서도 생동하는 삶 및 육신과 정신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함께, 작자 자신의 고달픈 벼슬살이에 대한 반성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농민들과 함께 하는 순수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간접적 다짐의 정서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갖추고 있다.
-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사실성과 현장성이 평민적인 시어의 구사를 통해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으며, 실학주의 중농 사상과 현실주의 시 정신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민요적 성격의 한시라고 정리할 수 있다.

2026 - 10 (B형/ 서술형) 문제 원본

10.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앞부분 줄거리] ‘그’와 ‘아내’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임씨를 소개받아 목욕탕 수리를 맡긴다.

(가)

“고향요?”

임씨는 반문하고서 쓰게 웃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고, 뭐 유행가 가사가 있잖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벌써 한 칠팔 년 돼 가네요. 경기도 이천 농군이 도시 사람 돼 보겠다고 땅 팔아 갖고 나와서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
그때 파이프를 들고 젊은 인부가 돌아왔다. 입에는 아이들이 먹고 다니는 주쭈바가 물려 있고 그 건정건정 뛰는 듯한 걸음걸이로 성큼 욕탕 안으로 넘어섰다. 저따위 녀석들이야 평생 노가다판에 뒹굴어도 짜지. 에이 못 배워 먹은 녀석.

그들이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한 뒤 아내가 그를 마루 구석으로 끌고 갔다. 뭔가 인부들 귀에 닿지 않게 속달거릴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럼, 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처음에는 목욕탕을 다 뜯어 발길 듯이 말하잖았어요? 견적도 그렇게 뽕았을 거예요. 이십만 원이 다 되는 돈 아녜요?”

아내의 말을 들으니 탄은 중요한 문제이긴 했다. 목욕탕 공사가야 말로 하자 없이 해야 한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들먹이며 임씨가 빼놓은 건적은 욕조와 세면대 사이의 파이프만 교체하는 수준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중략>

임씨는 아내가 내민 칠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일 층 현관까지 내려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를 궁리하던 중이었다. 수고했다라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때 임씨가 돌연 그의 팔목을 확 움켜잡았다.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가십시오.”

임씨는 백열구로 밝혀 놓은 형제 슈퍼의 노천 의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맥주는 내가 사지요.”

“아니요,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 가십시오.”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적중 !!!

| | |
|-------|-------------------------------|
| 문항 번호 | 2026학년도 B형 10번 서술형 |
| 배 점 | 4점 |
| 출제 영역 | 양귀자 소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 적중 내역 | 문풀 8회 A형 10번 관련 |

문제풀이반 8회 A형 10번 문제

10.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십시오. (4점)

(나)

“비가 오면 또 다른 별이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됩니다요.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임 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다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라고 말해 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 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느냐는 데 생각이 미쳤던 까닭이었다.

간단하게 여겼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흙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 놓은 자리와 기와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셔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잇따랐다.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없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 씨는 만족한다 싶을 때까지는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떨어 놓은 곳을 한 번에 으깨어 버리고 또 새로 흙손질을 거듭하곤 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 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 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구요.”

“다 되어 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 봐 드려야지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인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하여 우정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표했다.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2026 - 11 (B형/ 서술형) 문제 원본

11.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전군(前軍)이 말을 머물너 가지 아니하거늘 조조 문왈,
“어이 가지 아니하냐요?”
군사 답왈,
“산곡 저근 길의 식벽 비 만이 와 구렁의 물이 만이 괴야 말굽이
진혹의 빠져 갈 길이 업난이다.”
조조 디로하야 꾸지져 왈,
“군사라 하난 것사 산을 만나면 질을 파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게 군사라 하거늘 잊지 이만한 진혹의 못 간다 하리요.
늑고 약한 군사는 뒤의 달고 강장한 군사는 혹을 파고 남우를
베혀 질을 만들어 급히 발행하라. 영을 어기는 지면 베히리라.”
군사 마지못하야 혹을 파며 남글 베혀 질을 메힐시 쥬리고
진력하야 썩꾸러져 죽닌 지 만커늘, 조조 명하야 잠간 쉬히라
하니, 군사 일시에 산탐이와 연장을 지버던지고 쉬일시, 한 군사
올머 왈,
“너의 신세를 생각하니 잊지 서럽지 아니하리오. 십팔 세의
승상을 짜러 부모를 이별흔 제 오리라. 다른 형제 업고 뉘라셔
우리 부모를 봉양하며 삼십이 넘도록 처조이 업스니 오늘날
화룡도의셔 죽으니 뉘라셔 후사를 이을고 속결업난 너의 빅골
무쥬고흔이 아니잇가.”
... (중략) ...
“니 일흠이 삼국 뉴명하니 설혹 빌어 산터도 못사람의 치소
(嗤笑)를 잊지하랴. 참으 못 빌것다. 그리 말고 한 뵈 있다. 나를
구렁의 늪피고 현 장막을 치고 너희난 발상(發喪)하고 설이
우되, 가련타, 조 승상은 하늘이 쥬신 충성으로 천조의 명을
바다 통일천하 하라 하고 만리전장 나왔다가 중노(中路) 직사
하여쓰니 명천이 무심하야 공명도 못 일우고 노중고흔 영결
종천(永訣終天) 하엿구는 하고 올머 승장이나 집고 갈 터이니
그 뵈 잊지하야?”
정욱 왈,
“엿튼 뵈를 쓰지 마오. 산 조조의 목도 베히나고 몇몇치 눈이
불거는의 죽은 조조 목 베히 가기 걱정되리요. 청룡도 드는
칼노 목만 베히 가면 목의 움이 나며 싹이 날가. 빌어도 못
보고 목만 잃을 것시니 두말 말고 빌어나 보소서. 운장은 본더
의기가 중하고 또 아려 사람을 두호(斗護)하니니 요굴(腰屈)
흔는 사람은 참아 죽이지 못흔는지라. 혹 들을 뜻하니 어서
빳비 비시오.”
- 『화용도(완판 83장본)』 -

적중 !!!

| | |
|-------|--------------------|
| 문항 번호 | 2026학년도 B형 11번 서술형 |
| 배 점 | 4점 |
| 출제 영역 | 화용도(적벽가) |
| 적중 내역 | 문풀 4회 B형 2번 관련 |

문제풀이반 4회 B형 2번 문제

2. 다음은 ‘<적벽가>의 특징’에 대해 수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수업 장면>의 빈 칸을 작성하시오. (2점)

(가) [중모리]

“이내 설움 들어 보라. 나는 부모 일찍 조실(早失)하고 일가친척 바이
없어 혈혈단신(子子單身) 이내 몸이 이성지합(二姓之合)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조출하야 종가대사(宗家大事) 탁신안정(托
身安定) 떠날 뜻이 바이 없어 철 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병 외는 소
리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외는 소리 나를 끌어내니
아니 올 수 있든가. 군복 입고 전첩(戰笠) 쓰고 창을 끌고 나올 적에,
우리 아내 내 거동을 보더니 버선발로 우루루루 달려들어 나를 안고
엎드지며, ‘날 죽이고 가오,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홍안 젊은 년
을 나 혼자만 떼어 놓고 전장을 가라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랴 제,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장부가 세상을 태
어나서 전장출세(戰場出世)를 못하고 죽으면 장부 절개가 아니라고
하니 우지 말라면 우지 마오.’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
더구나. 잡았던 손길을 에후리쳐 떨치고 전장을 나왔으나, 일부지 전
장 불식이라.

(나) [중몰이]

창황 분주 도망할 제, 새만 푸르르르르르르 날아가도 복병(伏兵)인
가 의심을 하고, 낙엽만 버석 떨어져도 한장(漢將)인가 의심을 한다.

[아나리]

조조, 가끔 목을 움츠려, “정욱아, 귀에서 화살이 수루루루루루 지
내가고, 목 너머로 칼날이 번듯번듯 허는구나.” 정욱이 여짜오되, “이
제는 아무 것도 없사오니 승상님 목을 늘어 사면을 살피소서.”, “아,
인자 진정 조용하냐?”, “예, 조용합니다.” 조조 막 목을 늘이라 혈
제, 의외의 메조리 한 마리가 조조 말굽 사이에서 푸루루루루루 날아
가니 “아이고, 정욱아. 내 목 있나 보아라.” 정욱이 웃고 대답하되,
“승상님 목이 없으시면 어찌 말씀을 허오리까?” 조조 무색하여, “그
게 메조리더냐? 소금 발라 바삭 구면 한 잔 술 안주감 좋으리나.”,
“이 급한 중 입맛은 꼭 아시오그러.”, “메조리한테 놀랬단 말, 불가사
문어태인이다.” <후략>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수업 장면>

<판서 내용> ‘적벽가’와 ‘삼국지연의’ 비교

| | 삼국지연의 | 적벽가(화용도) |
|------|-----------------------------------|-----------------|
| 갈래 | 소설 | 관소리 (후에 정착된 소설) |
| 인물 |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조조 등 무수한 영웅 중심 | ▶무명의 하층 군사 중심 |
| 내용 | ▶삼국의 흥망성쇠 중심 | ▶적벽 대전 중심 |
| | ▶영웅주의와 유교적 이념 지향 |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 |
| 미 의식 | ▶조조의 영웅적 모습 부각 | ▶조조의 모습 풍자, 회화화 |
| | ▶비장미, 승고미 | ▶비장미, 골게미 |

